상장 건설사 지난해 3곳중 1곳 이상이 적자

금호산업·남광토건 등 10곳 2년 연속 적자

완전자본잠식 쌍용건설 어제 워크아웃 신청

기업개선작업중인 금호산업이 2년 연속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상장 건설사 3곳 중 1곳 이상은 적자였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도산 우려가 큰 곳도 적지 않아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 잠정치를 공시한 상장 건설사 42곳 중 35.7%인 15곳이 적자를 냈다. 금호산업은 적자가 3750억원에 달했으며 지난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자본잠식률은 97.4%로 완전 자본잠식은 아니지만 벼랑 끝에 섰다.

두산건설은 당기순손실이 6541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가장 컸고, 쌍용건설(4115억원), 금호산업(3750억원), 남광토건(2922억원), 삼부토건(871억원), 삼호(352억원), 코오롱글로벌(272억원), 경남기업(243억원) 순이었다.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남광토건, 삼부토건, 고려개발, 삼호, 동원시스템즈, 유신, 한일건설 등은 2년 연속 적자를 보였다.

아직 상장 건설사 23곳은 작년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지만 16곳이 2011년 적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적자 건설사는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전망이다.

가장 많은 흑자를 낸 곳은 삼성물산으로 순익 규모가 4161억원에 달했고 현대건설(3470억원), 대우건설(1594억원) 등 3곳만이 1000억 원이 넘었다. 상장 건설사 6곳은 실적 악화로 자본금이 줄어 자본잠식 상태였다.

지난해 말 기준 쌍용건설, 한일건설은 자본금을 모두 까먹고 부채로 버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삼호 43.3%, 두산건설 31.0%, 신원종합개발 15.1% 등이었다.

한편, 쌍용건설은 이날 채권단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워크아웃 추진은 2004년 10월 워크아웃 졸업한 이후 8년여 만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기업 인수합병(M&A)과 자본확충 지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 조달 불가 등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올해 들어 1500억원의 선수금을 받지 못해 유동성이 더 나빠진 상태다. 법정관리나 부도 등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3조원 규모의 해외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데다 23조원 규모의 해외공사 입찰자격이 박탈되고 1400여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 등이 우려된다고 쌍용건설은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방송인 이혜정 강의에 쏠린 눈

광주신세계 아카데미 강좌 200여명 참여 '인기'

㈜광주신세계가 주최한 요리연구가 이혜정 대표(빅마마키친스토리)의 인생 강의가 주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6일 ㈜광주신세계 아카데미 다목적 홀에서 '소중한 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의에는 200여 명의 고객이 참여했으며 이 대표가 '빅마마'라는 이름으로 성공을 거두기까지 인생 이야기를 펼쳐내 주부들의 공감을 샀다.

이 대표는 결혼과 육아 경험을 풀어내며 꿈을 어떻게 실현했는지에 대해 설명했으며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에피소드도 함께 소개했다. 또 요리 연구가로서 다양한 생활 속 식문화 지혜를 선보이기도 했다.

광주신세계는 3월에도 성공한 여성 CEO의 대표 주자 김미경 대표의 드림온 강좌와 '국민영어 강사'이보영 에듀박스 언어공학 연구소장의 영어교육 비법 강좌를 진행한다. /임동률기자 exian@

"추억을 맛 보세요" 2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는 옛 것을 추억할 수 있는 '남도 웰빙 추억의 먹거리전'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추억의 먹거리전에는 흑미, 강정, 찹쌀떡, 참미니꽈배기, 건자두 등 다양한 추억의 먹거리 상품들을 경험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카드 부가 혜택 반토막

통신·주유 등 40가지 축소

주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가 혜택을 줄이기로 고객 불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은 올해 카드 부가 혜택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고객에게 공지했거나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카드사들은 주력 신용카드 40여개의 부가 혜택을 올해 축소하겠다는 의향을 금융 당국에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조치의 주된 이유는 경영난이지만 금융 당국과 고객의 시선은 싸늘하다. 카드 혜택이 축소되거나 사용 실적 기준이 강화되면 카드사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SK카드는 최근 금감원에 지난해 출시된 신용카드 가운데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운 '클럽SK' 카드의 부가 혜택 이용자를 줄이고자 전월 실적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카드는 SK텔레콤 통신 요금을 자동 이체하면 월 최대 1만5000원을 할인해왔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최대 1만원, 60만원 이상이면 최대 1만5000원 할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월 실적 기준이 구간별로 10만원 가량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클럽SK' 고객은 통신비와 관련한 기존 혜택을 누리기 더 많이 사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는 8월부터 '프리머스' 영화관과 제휴한 미니 팝콘 무료 제공 서비스를 중단한다. 대상 카드는 '프리머스 삼성티클래스앤오일카드', '프리머스 삼성지엔미포인트카드' 등이다. /연합뉴스

최악 '엥겔지수'

20.79%로 8년만에 최고… 외식비 포함땐 30.87%

지난해 식료품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엥겔지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버는 돈보다 먹는 비용이 더 늘어 서민 생활이 팍팍해졌다.

26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전체 소비지출은 월평균 125만4583원으로 전년보다 2.9% 늘어난 반면에 식료품·비주류음료를 사는 데 쓴 비용은 26만771원으로 3.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엥겔지수는 20.79%로 전년의 20.70%에서 악화했다.

이는 2004년 20.8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국 단위 조사를 시행한 2003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다. 최근 외식 증가 추세를 고려해 일반 식당, 배달 음식, 패스트푸드 등에 쓴 비용인 '식사비'까지 포함하면 1분위의 실질적인 엥겔지수는 30.87%까지 오른다.

대조적으로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엥겔지수는 같은 기간 11.83%에서 11.59%로 낮아졌다. 1분위의 엥겔지수는 5분위보다 2배가량 높아 저소득층의 먹을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다.

지난해 물가가 안정됐음에도 엥겔지수가 오른 것은 식료품 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작년에 연간으로 2.2% 오른 데 그쳐 전국 단위로 물가 통계를 낸 1965년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4.0%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압도했다. 이런 현상은 2009년부터 이어오면서 저소득층의 식료품비 부담을 초래했다.

지난해 집세가 오르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 역시 커졌다. 1분위의 '실제 주거비' 지출이 전년 대비 5.8% 올랐지만 5분위의 상승률은 0.6%에 그쳤다. 여기에 의류·신발 비용까지 더하면 지난해 1분위가 '의식주'(의류·신발+식료품·비주류+식사비+실제주거비)에 지출한 돈은 50만6362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40.4%를 차지했다. 2004년 40.9% 이후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보험 계약때 특약 강요 못한다

금감원 4월부터 약관 개선

보험계약을 할 때 불필요한 특별계약(특약)까지 의무적으로 가입도록 하는 약관이 고쳐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9가지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보험사가 계약을 받을 때 다른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약관을 설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해후유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 상해사망특약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암진단특약에 가입할 때 질병사망특약도 함께 가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해당한다.

금감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불필요한 특약 가입을 의무화하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약관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장 연관성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특약 의무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의무가입 요건과 사유는 사업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은행 등에서 파는 보험인 방카슈랑스의 상품 명칭에 '○○은행'을 집어넣어 마치 은행이 보장하는 보험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축하금'이나 '평생보장'처럼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용어는 교체대상이다. /연합뉴스

하이트진로 소주시장 절반 점령

오비맥주, 56% 점유

하이트진로가 지난해에도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소주 시장에서 확고한 1위를 달렸고, 보해는 어려움을 딛고 5위를 지켰다.

맥주 시장에선 오비맥주가 하이트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 26일 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트진로의 소주 출고 실적은 5491만8000 상자(30병 들이 기준)로 전체 시장의 48.3%를 차지했다.

이는 2011년 점유율 47.1%보다 6.8% 증가한 수치다.

2위는 롯데로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14.8%(출고량 1684만3000 상자)였다. 이어 무학이 점유율 13.3%(출고량 1515만8000상자·경상남도) ▲ 금복주(7.6%, 868만9000상자·대구·경북) ▲보해(5.5%, 627만6000상자·광주·전남) ▲대선주조(3.4%, 391만6000상자·부산) ▲선양(3.5%, 393만3000상자·충남) 등 순이었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